

전남, 우승 향해 돌격 앞으로

K-리그 챔피언십, 내일 성남과 준PO 격돌 곽태휘·염동균 등 컨디션 최상 '돌풍 예고'

박항서 감독의 반전극이 시작된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전남 드래곤즈가 25일 오후 7시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일화화과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준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앞선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FC 서울과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골키퍼 염동균의 선방으로 3-2로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승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박 감독에게 주어진 플레이오프 티켓은 특별하다.

지난해부터 전남을 진두지휘한 박 감독은 부임 첫해 삼성후원팀 준우승을 차지하며 2009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 감독은 수비의 핵 곽태휘와 오른 무릎을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을 하느라 지리

를 비우자 김영철, 이정열, 안효연, 정운성, 김승현 그리고 이천수 등을 영입하며 판을 새로 짜다.

하지만 2009시즌은 시작부터 시련이었다.

3월7일 홈에서 열린 서울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1-6의 대패를 당했다. 설상가상 골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폼이 안왔던 '풍운아' 이천수가 개막전에서 오프사이드에 향의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해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600만원(경기당 1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첫 경기부터 빼겨려졌던 전남은 개막 후 5경기에서 4무1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후 이천수가 복귀하면서 팀의 공격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이천수 이적파동'이 발생했다. 이적 파동과 함께 팀이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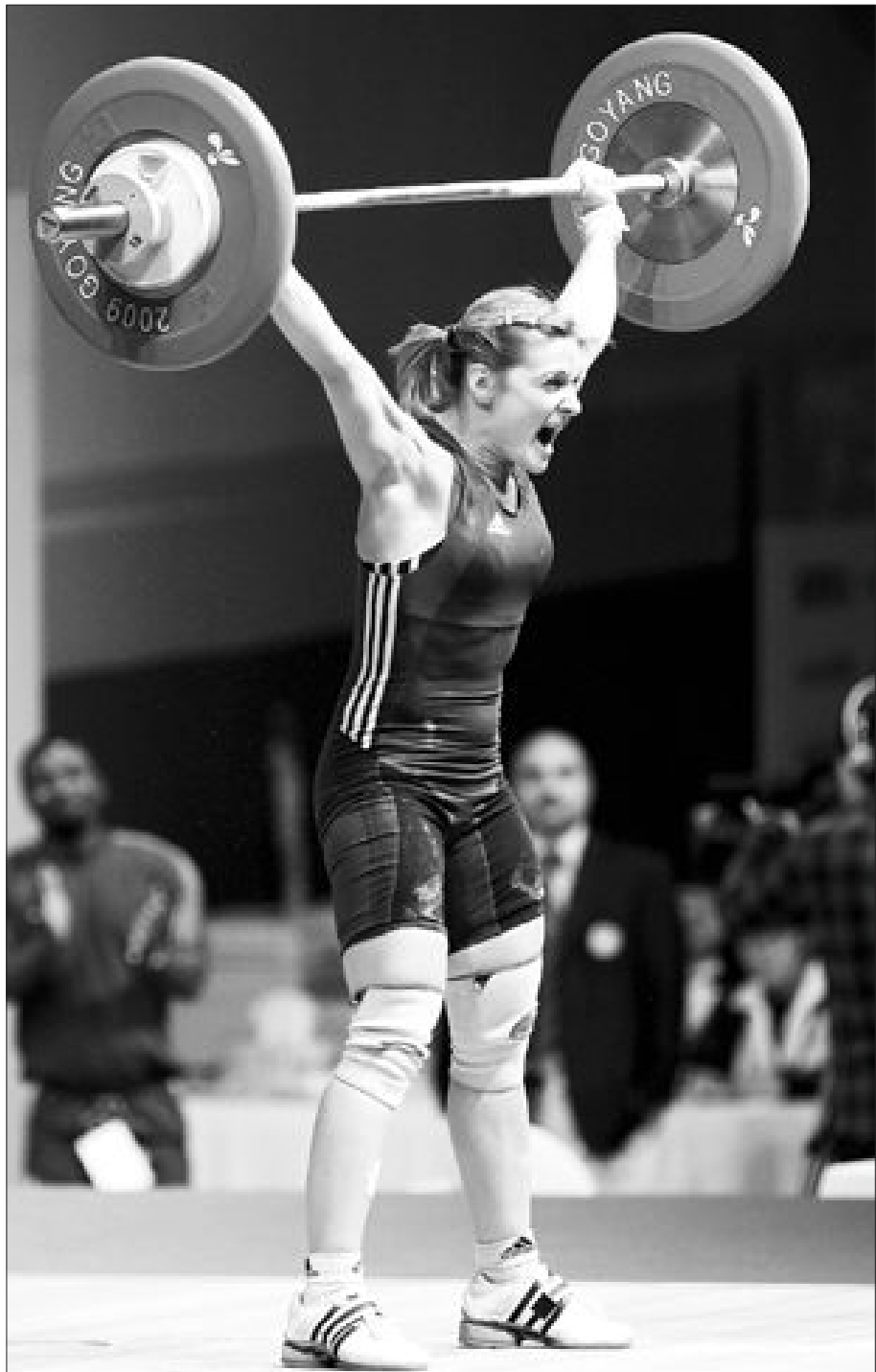
박 감독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힘겨운 전반기를 보낸 전남의 저력은 뒤늦게 발휘됐다. 후반이 들어 차근차근 승을 쌓으며 멀게만 보이던 6강 고지에 근접한 전남은 곽태휘의 복귀로 힘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1일 서울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1-1로 비기며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다.

개막전 대패의 불명예를 안겼던 서울을 상대로 6강행을 확정지은 전남은 준플레이오프에서도 천금같은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 번 설욕전을 펼쳤다.

전남에 뜨거운 가을을 선물한 박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제계와 약속을 받았다. 올 시즌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6강으로 이끈 공로와 전남의 유소년클럽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젊은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구단을 위해 앞장 서는 등 전남의 감독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난적 서울을 꺾으며 첫 관문을 넘은 박 감독은 그 상승세를 이어 25일 성남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쯔미야!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58kg급에서 프랑스 시게 아그네스가 83kg 바벨을 함성과 함께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안서 전국 섬 등반대회

28일 도초면...시금치축제도

신안군은 오는 28일 도초면 큰 산(해발 250m)에서 '전국 등반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섬 등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등반대회는 '은빛 나는 해수욕장과 그리고 산과 섬'을 주제로 열린다.

등산 코스는 파크 골프장에서 출발, 큰 산 입구→큰 산 정상→임도→목교→시목해수욕장 숲길 산책로→행사장까지 5.2km로 2시간 30여분이 걸린다.

부대행사로 는 막걸리 시음회와 함께 시금치 무림, 간재미회 등을 만날 수 있는 '제2회 신안 시금치 축제'도 열린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석지현 2관왕 명중

포양공선수권 컴파운드

여자 컴파운드(양궁에 도르레가 달린 활) 대표팀의 석지현(한국체대)이 아시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23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석지현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막을 내린 제16회 아시아양궁선수권 대회 컴파운드 개인전 결승에서 태국의 틴부아 나리사라를 111-109로 물리치고 정상에 차지했다.

석지현은 컴파운드 단체전에서도 인도를 225-215로 제압하면서 금메달 두 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 9월 울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 우승자인 주현정(현대모비스)은 결승에서 중국의 장운루를 116-105, 11점 차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어 최강임을 입증했다. 김유미(한국토지공사)는 동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여자 양궁은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에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또 울산 세계선수권 남자 리커브 우승자였던 이창환(두산중공업)은 메달권에도 들지 못했다. 남자 리커브 개인전 최고 성적은 김성훈(한국체대)의 8강 진출이었다.

다만 남자 대표팀은 리커브 단체전에서 인도를 222-218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 체면치레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본선 실패' 히딩크

아르헨·나이지리아서 러브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유럽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러시아 사령탑 거스 히딩크(63·네덜란드) 감독이 나이지리아 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나년 7월 러시아와 계약이 끝나는 히딩크 감독은 지난 19일(이하 한국시간) 슬로베니아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0-1로 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통신은 23일 나이지리아 지역지 '넥스트'를 인용해 히딩크 감독이 사이부 아모두 감독이 떠난 나이지리아 사령탑을 맡을 후보 가운데 유력한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히딩크 감독이 디에고 마라도나(49) 감독과 함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공동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 생활체육캠프 성료 2009 외국인노동자생활체육캠프가 지난 23일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노동자들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광주시청 건학·무등산 등반에 이어 축구와 배구 등 스포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월드, 128야드 전진...시즌 5번째 터치다운

미식축구(NFL)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인 하인스 워드(33·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시즌 5번째 터치다운을 찍었다.

워드 러시버 워드는 23일(한국시간) 캔자스시티 에드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11주차 경기에서 양팀을 통틀어 가장 긴 128야드를 전진하며 터치다운을 올렸다.

2경기 만에 터진 올 시즌 5번째 터치다운이다.

워드는 3-7로 뒤진 2쿼터에 쿼터백 로 슬리버거의 8야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에 성공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24-27로 졌다.

피츠버그는 6승4패로 아메리칸콘퍼런스(AFC) 북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화순 코리아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개막

29일까지 6일간 하니움체육관 日·濠·러시아 등 14개국 참가

화순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 대회 화순군에서 열린다.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엔 뉴질랜드·호주·필리핀·네덜란드·이집트·몽고·우크라이나·태국·대만·러시아·일본·캐나다·말레이시아·한국 등 14개국 21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13개국 외국선수단은 20일부터 23일 까지 입국하였으며 금호화순소프트에 여장을 풀었다.

국내 선수단은 화순읍내에 숙소를 정

하고 마지막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28일엔 오후 1시부터 종목별 준결승이 벌어지고, 29일엔 대망의 결승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은 SBS-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이효정 선수는 오는 28일 낮 12시에 하니움에서 팬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이번 국제대회를 계기로 화순이 세계적인 배드민턴의 메카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장 시설과 운영은 물론 화순의 넉넉한 인심을 세계인의 가슴속에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수기자 uns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음성채팅의 신기원

대한민국 최초!

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전화요금이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대화서비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그대로인 편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아직까지 24시간
100% 작정동화 유지

1666-5425

문의전화 : 1588-3533

한국서리은행과 함께하세요!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화상담 010-7167-3838

대표:성봉규 (법인등록번호:16-07-29)

본 소호:제1회 영남지역 법원행정청
원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이사
(주)사단법인 영남지역 법원행정청
전:355-81사주 전:355-81000
330호
전:355-81사주 사:90000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1509	241	890000	신안
	남구 신안동	441	441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801	1801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147	1147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595	595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417	417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99	599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5	55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18500	18500	1900000	신안
	남구 신안동	54950	54950	190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673	1673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4759	4759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1807	1807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306	306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4838	4838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3035	3035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1807	1807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95	595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6512	16512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823	1823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69000	69000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709	1709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308	5308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6894	6894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3723	3723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673	1673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4807	4807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075	2075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1782	1782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646	2646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398	2398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489	5489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3031	3031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1803	1803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555	2555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4759	4759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4648	4648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3038	3038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134	5134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142	2142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5114	5114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050	2050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2022/278	2022/278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3722	3722	290000	신안
군민주택(광주·전남 지역)	북구 신안동	1464	1464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114	5114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5114	5114	290000	신안
	북구 신안동	8653	8653	290000	신안